

나주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향한 날갯짓 시작

에너지 국가산단 확정...덕산리 124만㎡ 부지 3519억 투입 산단 조성 기자재·기업 등 유치 에너지 산업 집적지 조성...17~18일 에너지 포럼

나주시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꿈 실현을 위한 합찬 날갯짓을 시작한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적된 나주는 정부의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지'로 선정된 데 이어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 인공 태양 연구 시설과 기후에너지부 유치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7월 정부로부터 '에너지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승인을 받아 나주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4만㎡ 부지에 35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 산단은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전력 기자재, 수소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해 에너지 산업의 집적지를 조성한다. 나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전략산업으로 나주혁신산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가 열린다. 에너지 분야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는 이 포럼은 나주시가 에너지산업의 국제 거버넌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올해 포럼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와 세계적 석학, 주요 에너지 기업인 등이 대거 모여 미래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포럼 주제는 'DDD-에너지 전환: 분산

(Distributed), 직류(DC), 디지털 AI(Digital AI)'로 신기술을 접목한 전력망 혁신, 에너지 산업의 AI 융합 등 글로벌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조 강연(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 ▲AI for Energy ▲Business and Investment ▲Energy for AI 세션으로 구성되고 스탠퍼드대 토마스 헬러 교수, 글로벌 기업 대표 등 국제 전문가들도 패널로 참여한다. 이 포럼은 나주를 에너지 국제협력의 거점 도시로 부각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나주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동시에 해외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의 물꼬를 틀 전략적인 비즈니스포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주에는 대한민국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이자, 차세대 에너지기술의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켄텍)가 있다. 나주시는 켄텍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결합한 '에너지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다. 켄텍 주변에 실증연구소, 창업보육센터, R&D 기반 기업들을 유치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육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0억 원(국비 100억 포함)을 투자해 에너지 분야 기술 실증과 기업 성장을 본격 지원하는 전략사업이다.

1단계(2021~2024년)에서 기술이전 143건, 연구소·기업 24개 설립, 창업 69건, 일자리 471개 창



윤병태(왼쪽 여섯번째) 나주시장이 지난 7월 22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2025 혁신융합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의지를 밝혔다. (나주시 제공)

출, 누적 매출 3560억원 이상 성과를 거두며 전국 14개 특구 중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단계는 친환경·고효율 태양광 발전 기술과 연계 안정화, 차세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산업 중심으로 실증 기반을 조성하며 한전의 기술과 지역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시장 진출과 글로벌 확장을 위해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지역산업 연계 및 전국 특구 간 협력체계 확립에 중점을 둔 이 사업은 지역 기반 자생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주를 에너지 신산업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주시는 또 일명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 실증연구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는 이미 한전과 켄텍, 에너지 공공기관 등 연구 및 실증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고, 인공 산단과 인프라 연계도 뛰어나 국가적 프로젝트 유치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 연구시설은 초고온 플라즈마 제어, 고자기장 코일 기술, 장주기 운전 등 고난도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국내외 석학과 고급 인력 유입이 예상된다. 인공태양 연구 시설 유치가 성공하면 나주는 핵융합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게 된다. 여기에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을 검토 중인 '기후에너지부'의 나주 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국전력, 전력

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다수의 에너지 관련 기관이 집적화된 나주는 부처 유치의 타당성과 행정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기후에너지부가 나주에 들어오면 정책기획과 예산 집행의 주요 기능이 이관돼 명실상부한 에너지 행정의 중심지로서 나주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형 에너지 생태계를 완성해 나주의 미래 비전인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를 구현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라며 "나주를 에너지 자립 도시를 넘어 국제 에너지정책과 기술 흐름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장흥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전국 강태공 유혹

감성돔 최대 서식지...장흥군, 내일 시범 개장 후 10일부터 본격 운영

장흥군은 3일 회진면에 위치한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을 시범 개장하고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은 2008년 첫 개장 이후 감성돔 최대 서식지로 알려진 데크형 바다낚시터다. 초보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전국 낚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였지만, 코로나 19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휴장 상태가 이어져 왔다.

군은 재개장을 앞두고 주요 시설 전면 정비를 마쳤다. 운영일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장한다. 단, 시설 노후화로 인해 수상 펜션과 수상 낚시광장은 운영하지 않는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의 재개장을 계기로 많은 낚시 관광객이 장흥을 다시 찾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의 차(茶), 맥주를 만나다

피크닉+하맥축제 300여 명 참여...별문쇼·북크니 등 다채



강진 오감누리타운에서 열린 다(茶)정한 피크닉 in 하맥축제 모습.

강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30일 강진 오감누리타운 일대에서 열린 '다(茶)정한 피크닉 in 하맥축제'가 300여 명의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강진하맥축제와 연계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여유있는 차 피크닉을 즐기며 하맥축제에도 참여해 다채로운 경험을 함께했다.

현장에서는 ▲티(茶) 블렌딩 클래스 ▲스트레이징

클래스 ▲별문쇼 ▲북크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사전 신청한 50가구에 제공된 '피크닉 세트'(작두판자, 로컬 간식, 피크닉 용품 포함)는 큰 호응을 얻어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이번 피크닉은 다회용기 사용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으로 친환경 실천을 확산했으며,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으로 강진의 문화 자산을 활용하고 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민생 안정·미래 성장' 추경 1조2149억 편성

2차 추경 보다 956억 증액...지역 상품권 발행·관광 인프라 강화 등

나주시가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2149억원을 편성에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3회 추경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줄이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소 사업에 집중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제2회 추경보다는 956억원(8.5%) 늘어난 규모다.

나주시는 건축재정 속에서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33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5억원) 등 시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단계 사업으로 즉설현 문화생태원립 조성(49억원), 남평 간이역 테마공원 조성(9억원), 로컬브랜딩 활성화(5억원) 등 관광 인프라 강화에도 예산을 배분했다.

농촌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세지면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23억원), 귀농·귀촌마을 조성(20억

원), 미래 지역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반 구축(6억원)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사업이 포함됐다.

여기에 청년 월세 지원(3억원 증액), 복합혁신센터 운영 준비(29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9억원), 경로당 무더위쉼터 보강(5억원) 등 주거·복지·안전망 강화에도 적극 투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72회 나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 지역상품권 할인율 20%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11월까지 구매 한도 월 100만원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기대'

함평군이 9월부터 모바일 함평사랑상품권 할인율을 20%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도 두 배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함평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바일 함평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하고, 구매 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월 50만원 한도로 기존과 같게 10% 할인 판매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번 혜택은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5%와 특별재난지역 5% 추가 국비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므로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캐시백 혜택으로 제공한다. 구입시 정액이 출금되지만, 사용자 결제 금액의 20%가 캐시백으로 적립돼 다음 결제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캐시백으로 적립된 금액에는 추가 적립이 이뤄지지 않는다.

구매 방법도 간단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

상품권 Chak'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카드형 상품권은 지정 은행 창구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할인율이 상향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 상점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부정 유통 단

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함평사랑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확대가 군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침수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구복규 화순군수, 특혜 의혹 무혐의

외가 문중 소유 땅에 관광 꽃단지 조성...군 의회 의결 등 적법 절차

외가 문중 소유 땅에 관광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구복규 화순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

발된 구 군수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지난 5월 구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사건을 전남경찰청에 이첩했다. 고발

장에는 구 군수가 지난 2023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군비 15억원을 투입해 구 군수의 외가 문중 소유의 땅(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대 21필지)에 관광 꽃단지를 조성, 문중에 임대료, 시설 정비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담겼다.

경찰은 화순군이 꽃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군 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밟은 것으로 봤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